

# 광양시, 1000만명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 청사진 마련

### 자문위원·부서장 등 30여명 참석 '관광진흥계획 용역' 보고회 비전·방향성·주력상품·실행력 등 4대 전략 19개 사업방안 제시

광양시가 1000만 관광객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 실현의 청사진이 될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양시는 최근 전문가위원, 관계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시 관광진흥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임채기 관광문화환경국장 주재로 열린 보고회는 여가공간연구소 박종진 대표의 추진상황 보고와 의견 수렴, 질의 순서로 진행됐다. 보고회에서는 광양관광의 비전, 방향성, 킬러 콘텐츠, 실행력 등 1000만 관광객 시대를 개막

할 마스터플랜으로 4대 전략, 19개 사업방안이 제시됐다. 4대 전략은 관광다움을 담은 콘텐츠 발굴과 관광문화화를 담은 콘텐츠 육성, 관광인프라 확충, 글로벌 관광도시 기반 마련 등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로 비상할 수 있는 동력 확보가 핵심이다. 전략별 사업 계획은 아이언아트시티 브랜드 구축, 광양 바이브 투어 상품 개발, 광양형 K-콘텐츠 육성 등 관광관광의 잠재자원을 육성하고 광양관광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킬러콘텐츠 발굴이 제안됐다.

또 예산의 구체적 근거, 차별성을 가진 도시네이밍, 흥미, 재미, 심미 등 3가지 요인을 갖춘 콘텐츠 발굴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요구됐다. 임채기 광양시 관광문화환경국장은 "관광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위기 시대에 생활인구를 늘리고 유동인구를 흡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산업"이라며 "우리시는 백운산권, 구봉산권, 섬진강권 등 권역별 핵심 관광인프라 구축 등 광양관광 선도 기반 마련을 위해 가열차게 추진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한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검토돼 최종보고회 때 광양관광의 비전과 방향, 실현가능한 전략 등을 담은 광양관광의 청사진이 제시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지난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전문가위원, 관계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시 관광진흥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광양시 제공)

## 고흥군, 일하는 청년 공급 '일자리연계형 주택' 140호 건설

### 국토부 지원주택 공모사업 선정

고흥군이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을 위해 신축 주택 140호를 공급한다. 고흥군은 최근 국토교통부 주관 '2023년 하반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와 일자리 지원 시설이 결합한 청년 근로자 임대주택이다. 고흥군은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와 주택도시기금 예산 등 총사업비 351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사업에서 주택건설비의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흥군은 140세대 규모 공공 임대주택을 건축한다. 이곳에는 입주자들의 창업과 생활편의를 위한 회의실, 실내 운동시설 등이 들어선다. 19~39세 청년 가운데 중소기업·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일하거나 창업인이라면 공공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혼인한 지 7년 안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 5년 이상 장기 근속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고흥군은 국토부의 현장 조사와 평가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공모 최종 대상지에 선정됐다.



140세대 규모 고흥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조감도. (고흥군 제공)

고흥군은 우주 방사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농공단지 착공, 스마트 복합벨리 확대 조성 등에 따른 대규모 일자리 창출 수요에 따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이번 공모에 지원했다. 고흥군은 청년층과 귀농·귀촌인을 유입하기 위해 창업자금·주거비 지원, 찾아가는 귀향귀촌 설명회 추진, 귀농·귀촌인 사후관리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공공임대주택 500호 조성을 민선 8기 군정 핵심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청년층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복지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 여주시 '선소테마정원 조성사업' 오늘 기공식

### 195억원 투입 2025년 완공

여주시가 26일 오전 11시 선소유적 내에서 '선소테마정원 조성사업'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선소테마정원은 오는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195억원을 투입, 선소유적 내 지상 2층 규모 선소테마영상 전시관과 한옥화장실, 산책로가 조성된다. 정원의 중심인 '여수 선소테마영상전시관' 내부는 실감영상·융합형 체험콘텐츠·미디어 아트 등 신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전시기법을 활용해 여주시와 선소유적 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유기적 관계를 담아 낼 예정이다. 행사 당일 기공식은 정기명 시장과 국회의원, 도·시의원, 선소상가변영희 및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선소테마정원 조성사업 조감도.

정기명 여주시장은 "선소유적은 역사적 공간을 넘어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도심 속 정원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여주시의 관광과 문화유산을 결합하는 문화거점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순천시 신청사 '첫삽' ... 4만 7048㎡ 규모 2025년말 입주

### 현 청사 포함 동측으로 확장

순천시가 신청사 건립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순천시 신청사는 현 청사를 포함해 동측으로 확장한 2만 6758㎡ 부지에 지하 1층·지상 6층, 연면적 4만 7048㎡ 규모로 건립된다. 올해 말 착공한 뒤 2025년 말 입주, 2026년 11월 총괄 준공을 목표로 달려갈 계획이다. 신청사는 기존 청사와 달리 본청과 의회 청사를 분리해 의회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특히 옥외에는 중앙공원과 더불어 건물 사이 곳곳에 크고 작은 6개의 중정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항상 열려 있는 심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시설로는 1층에 북카페, 종합민원실, 직장어린이집, 금융기관 등이 들어서며, 2층부터 6층은 업무공간, 3층은 구내식당과 코워킹스페이스(협업 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지하에는 중앙공원 하부를 활용해 주차장 520면을 조성한다. 신청사에는 41개 부서 960여 명의 직원이 입주할 예정이다. 현청 청사가 협소한 탓에 부서가 이곳저곳 분산돼 통합 민원 처리가 불편했던 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사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2165억원으로, 청사 신축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약



지난 22일 노관규 순천시시장과 정병희 순천시회의의장, 지역 국회의원, 기관·단체장,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사 건립 기공식 행사가 열렸다. (순천시 제공)

1940억원의 신청사 건립기금을 조성했다. 신청사 옆 장천 우수저류시설 부지에는 원도심 문화스테이션이 건립된다. 문화스테이션은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1만 2438㎡ 규모로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로컬푸드판매장,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주차장 등 6층의 시설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신청사 건립은 단순히 시청을 짓는 것을 넘어 미래 100년 순천시민의 집을 짓는 뜻깊은 사업이다"며, "쾌적한 업무공간과 편의시설을 확보해 시민에게 편리하고 통합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순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신청사와 문화스테이션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여수10·19범국민연대와 여순항쟁전국유족총연합 등 43개 여순사건 유족 및 시민단체가 지난 21일 전남도 동부청사 앞에서 피해 신고 기간 연장과 직권조사 확대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여순사건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 재구성하라

### 순천지역 10개 사회단체 촉구

순천지역 사회단체들이 여수·순천10·19사건의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기획단)의 재구성을 촉구했다. 여순사건순천유족회와 순천시체육회,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이통장협의회 등 10개 사회단체들은 21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또다시 이념 갈등으로 몰아가려는 것 아니냐"면서 "기획단의 구성이 매우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2021년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른 위원회 구성은 특별법 법안대로 정치적 중립 인사로 구성됐으나, 이번 기획단 단원 선정은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인사들로 밀실에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을 규명할 학계 및 전문가

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올바른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유족과 국민들을 무시하고 '이념'이라는 울가미에 가두려는 속셈으로 보인다"고 반발했다. 단체들은 이와 함께 "포함된 법률가도 평소 국가폭력이나 민간희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로 다시 선정하고,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 당시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편파적인 방향으로 규정되지 않도록 개입하지 말고 위원회에 맡겨달라"고 요구했다. 순천유족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열차 안에서 유족들을 만나 해방 후 국가 공권력에 의해 호남인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안긴 점에 공감하며 올바른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유족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재광보성군향우회장 박창순 광주대 교수 선출

박창순 광주대학교 교수(부동산학과·사진)가 신임 재광보성군향우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재광보성군향우회는 지난 22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37회 정기 총회·2023년 송년회'를 열고 박 신임 회장을 선임했다. 이날 총회에는 광주에서 활동하는 보성군 향우 5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창순 회장은 임기 2년 동안 12대 회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보성읍 출생인 박 회장은 보성중학교, 조대부고 등을 졸업하고 광주대학교에서 부동산학 박사 과정을 밟았다. 35년간 조종사로 활동하며 광주시정

향공대장을 지낸 뒤 현재 광주대 부동산학 교수로 재임하고 있다. 그는 이날 취임사에서 재광보성군향우회 발전기금으로 3000만원을 쾌척하고, 500여 향우들에게 황토 고구마 1상자씩을 선물했다. 박 회장은 "인생 마지막 직책으로 생각하면서 책임감과 열정, 봉사하는 마음으로 재광보성군향우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 2026년 전남체전 개최지 구례군 최종 확정

### 4번 도전 끝 유치 성공

구례군이 오는 2026년 열리는 전남도 체육대회(전남체전) 개최지로 선정됐다. 전남도체육회는 최근 전남도 체육회관에서 연 51차 이사회에서 '65회 전남도 체육대회' 개최지로 구례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구례군은 4번의 도전 끝에 전남체전을 유치하며

14년 만에 대회를 구례에서 치르게 된다. 구례에서는 지난 2012년 51회 전남체전이 열렸다. 구례군은 65회 전남체전 유치를 위해 지난 10월 유치 신청서를 내고, 시군체육회장단협의회 회의의 추천을 받아 우선권을 받았다. 이달 19일에 열린 현장심사에서는 2만4000명 군민의 의지를 담아 대회 개최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오는 2026년 구례에서는 전남체전과 전남 장애인체전이 함께 열린다. 다음 해에는 전남도 생활체육대축전과 전남도 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이 이어진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유치 성공은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룬 성과"라며 "이번 전남체전 개최 확정을 계기로 스포츠 기반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숙박·음식업소에 대해 바가지요금 근절, 친절·위생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